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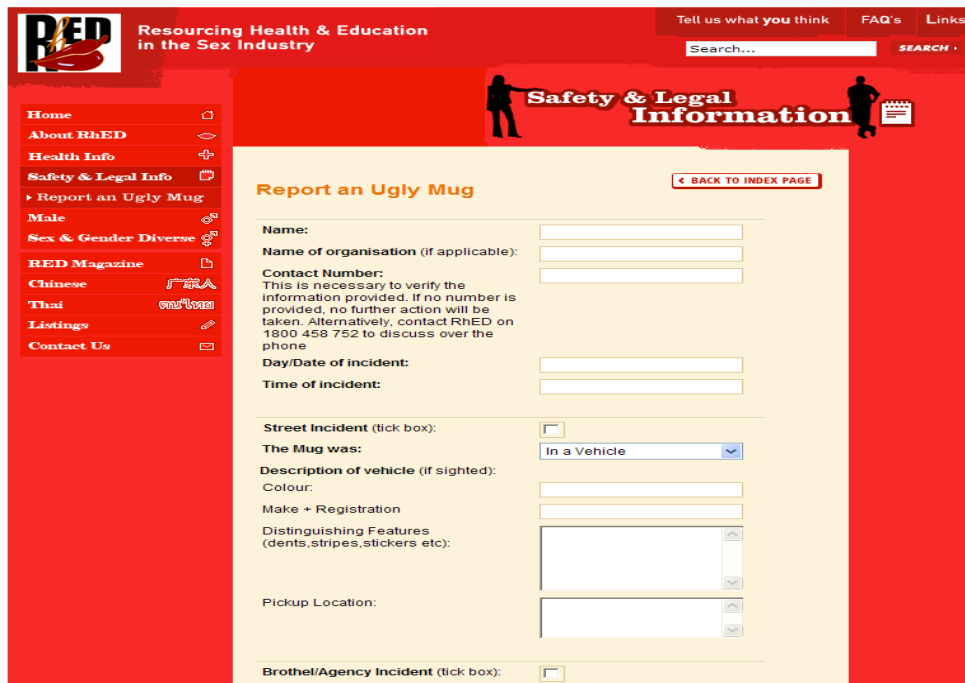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탐하다!

2012년 별별신문에서는 ‘성매매여성 인권을 생각해보기 위한 기획기사’로서,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일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①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며, 이후에 ②선불금 사채시장의 본질 ③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불리한 노동계약조건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별별신문] 싸리

성매매여성, 범죄의 가장 쉬운 표적

- 2009.8 제주시 연동 원룸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4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됨
- 2009.12.4 태백시 황지동 한 여관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5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 2009.12 대전 유천동 원룸에서 업주와 마담의 감금 및 구타에 의해 2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 2010.4 전남여수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여성이 살해된 채 암매장
- 2010.7.30 서울 청량리 한 업소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3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 2010.12.11 전주 덕진구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3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 2011.10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성매매 여성이 살해됨

위의 내용은 2011년 하반기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여성과 인권」에서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살인범죄 뿐만이 아니다. 최근 4년간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노래방 도우미가 살해당한 사건(2011, 울산/ 2010, 김천/ 2010, 마산/ 2009, 서울), 여성안마사가 집단성폭행을 당한 사건(2008, 부산), 출장안마사가 특수강도 피해를 입은 사건(2011, 전주), 티켓다방 여종업원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절도를 당한 사건(2008, 광주, 목포, 남원/ 2010, 경남 산청, 광주, 천안, 포항, 목포/ 2011, 통영/ 2012, 김제), 업주가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사건(2010, 부산) 등 각종 범죄의 사



호주 빅토리아주 성노동자를 위한 단체 RhED에서는 진상고객(Ugly Mug)을 신고하는 사이트를 두고 여성을 괴롭힌 성구매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 행동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해 놨다. 출처: <http://sexworker.org.au>

각지대에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늘 있었다.

왜?!

살인, 절도, 강간, 폭행 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가해 동기는 ‘뚜렷한 동기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목졸라 살해’,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봉사로 시비가 붙자 자신을 무시한 이유’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티켓다방, 출장 안마사, 노래방도우미 등 유인해내기 가장 쉬운 여성들이라는 점, 특히 손님과 1:1로 마주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특수성 때문에, 여성들은 범죄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손님이라는 우월적인 위치,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1:1의 공간, 성매매라는 불법적 위치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일상의 폭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들

보도된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폭력은 성구매자나 업주가 욕하거나 소리지르는 것,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 괴롭힘과 집단따돌림, 신체적 공격들, 성폭력, 절도 등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건이 벌어진 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 접수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범죄피해가 있어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구매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형사고소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경미한 처벌만 받고 사건이 종결되어 버리

거나, 티켓다방 여성종업원이 성구매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고한 여성이 성매매방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몰리기도 한다. 가장 침해한 사안인 성매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는 어떨까? 특히 ‘성매매를 하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한국사회가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의심하는 지금 한국법정의 수준에서 말이다.

안전을 도모하는, 호주의 가이드라인

성매매가 합법화된 호주에는 출장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성노동자(sex worker)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RhED에서 만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수칙이 포함된다. 일하러 갈 때 핸드폰을 꼭 가져갈 것, 성구매자가 있는 장소 주위를 체크할 것,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예약을 취소할 것, 성구매자와 마주할 때 처음 10분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것, 즉 단둘이 있게 되자마자 통제권을 가지고 올 것, 갑작스럽게 성구매자가 돌변할 때도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 밖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싫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펜, 호루라기, 스프레이를 무기로 사용할 것, 문 근처에 소지품을 두고 도망칠 때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할 것 등과 같은 것들이다.

특히 위협, 폭력, 학대 등의 가능성을 제거할 책임을 업주에게 두고 있는데, 성구매자가 여성을 위협할 경우에 안전하게 성구매자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위험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과 도구, ... 진상손님이 다시 업소에 나타나거나 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노동자 단체에 진상리스트를 신고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협, 폭력, 학대 등의 가능성을 제거할 책임을 업주에게 두고 있는데, 성구매자가 여성을 위협할 경우에 안전하게 성구매자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위험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과 도구, 업소의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해

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언, 진상손님이 다시 업소에 나타나거나 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노동자 단체에 진상리스트를 신고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역

설적으로 성매매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직업에서 '도망갈 준비'를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이 무기로 사용할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폭력의 위험과 마주해야 하는 이들, 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있어 위와 같은 안전수칙이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안전에 무방비 상태, 진상리스트라도...

살인사건이 아닌 이상, 유흥업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 사건은 '쉬쉬하면서' 넘어가기 마련이다. 시끄러워질수록 업소의 업주나 여성들

에게 불리할 뿐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하면 할수록 희생되는 여성들만 늘어날 뿐이다. 일차적으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폭력과 성폭력 피해로 신고한 여성들을 성매매방지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자로 취급함으로써 신고를 어렵게 하는 경찰과 사법부도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된 가해자인 성구매자를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호주 성노동자 단체에서는 진상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인상착의, 신상명세를 성노동자들끼리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율적인 견제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이 지어준 이름, “유흥종사자”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별별신문] 숨

이 기사는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를 참고해서 풀어본 이야기입니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언니들, 그거 알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한국에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유흥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대네요. 그 법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왜 ‘부녀자’라고 해 놓았을까요? 유흥종사자는 여자여야만 하는 걸까요? 직업에 대해 이렇게 딱~하니 ‘여자만 하는 직업’이라고 법에 적혀 있다니 좀 놀랍지 않아요? 유흥업소의 고객이 남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사자가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예요. 한편으로는 이 법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남성接客원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성에게 여성이 술을 따르고 시중을 드는 것을 법으로 당연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 처럼 취급하는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라는 문제제기죠. 법은 평등의식을 담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흥종사자, ‘그냥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닙니다!

유흥종사자로 살아가는 언니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나요? 언니들이 마담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보도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도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 언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노골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일삼는 고객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또 업소 소속이면 이상한 출근비도 내야 하고, 지각비나 결근비 같은 벌금이 있는데, 보도 소속일 때는 이런 게 없어요. 대신 높은 소 개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진상손님 대처법, 종합소득세 납부까지 근무환경이 달라지는데 각각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요. 선불금은 마이킹, 일수, 사채 같이 이름도 저마다 다르고 제공방식에도 변화가 있지만, 언니들이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은 같았어요. 일하면서 값 아나가면 되겠지만 불어나는 이자에, 미용, 성형, 옷값과 같이 일에 필요한 경비들을 지출하다보면 빛은 사라지기는커녕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계속되는 빛과 스트레스로 약을 먹거나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언니들도 있구요 T_T 아무래도 가장 힘든 건 일할 때 만나는 손님들인 것 같아요. 좀 점잖은 사람이 오면 그 날은 운이 좋은 거지

만 어디 손님이 내 맘대로 되나요? 손님이라고는 거의 남자밖에 안 오는 곳, 남자들이 노는 문화를 많이 접해본 한 언니가 하는 말을 들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풀고 그런 다는데 제가 봤을 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술집에 오면 오는 (여자) 애들. 좋게 말해서는 그냥 가지고 노는 인형. 좀 더 이빠야 하고 더 날씬해야 하고 자기 취향 입맛 그런 거 할라고 하고, 골라야 하고,” 남자들은 꼭 아가씨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가씨 외모에 대한 이야기 없이는 대화를 못하고, 함께 2차를 가야 자기들끼리의 친분이 돈독해 진다고 믿는 것 같아요. 왜 여전히 남자들은 여자 도우미 없이는 놀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놀러 왔으면 얌전히 놀다 갈 일이지, 왜 언니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 3면에서 계속

무제

이 기사는 현정(가명)님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돈이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여차저차해서 생긴 빚들에 치이고 있었고, '선불금'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는 조마조마하면서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로 생각될 지경이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친 언니집에 얹혀 살기 시작한 이틀째부터 인터넷을 검색했다.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량에 놀랐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아가씨 편의를 봐준다고 친절히 설

명이 되어 있었다. 별로 예쁘고 날씬하지 않은 20대 후반이라는 내 주제를 알기에 --;; 언감생심 강남 쪽은 클릭도 하지 않고 강북만 둘러보고 대략 시청 쪽에 있는 룸으로 낙점했다. 유리방, 술3종, 방석집 이런 거 저런 것도 몰랐던 나는, 고작해야 술집에서 옆에 앉아 기분 맞춰 주는 일을 할 뿐인데도, 준다는 선불금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며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이가 몇살인지만 물어보고 가게로 와보라고 해서 화장이랍시고 이것저것 좀 찍어 바른 다음에 익숙하지도

않은 길을 물어물어 찾아갔다.통화가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은 왜였는지도 모르겠다. 암튼 인터넷 사이트 소개사진에는 가게가 샵방 샵방해 보였는데, 완전 싸구려 재질과 조악한 디자인의 가게를 마주하고서야 내가 진짜 '유흥업소'라는 곳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제 돈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인지 ○부장과 함께 룸에서 면접 비스무리한 것을 보면서도 자꾸 위축이 됐다. 내가 예쁘지 않으니까, 내가 어리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부장의 말이 그저 고맙기만 했다.

신기하게도 이름도 묻지 않았다. 어디서 주위들은 것은 있어서 이름을 물어보면 본명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일을 하는데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희한하기만 했다. 선불금은 친구보증에 있어야만 해준다는 말에 며칠 일해보고 받자 라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다.

➡ 2면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권리,
잘 챙기고
있나요?

언니들이 테이블 보거나 2차 나갈 때, 받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라는 걸 납부하는 거 아세요? 내가 번 돈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부당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잘 따져야 해요. 업주나 사채업자가 터무니없는 고리사채를 권한다든지, 마담이나 실장이 성형하라고 자꾸 권한다든지, 업소나 보도에서 급여와 같은 돈 계산을 잘 안 해준단든지, 이런 것처럼 다른 직업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이상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언니들을 무시하거나 막 대할 권리는 없죠. 자기들 마음대로 스킨십 하는 건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해요. 업주들도 '접객원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손님 단속 좀 잘 해주면 좋겠어요. 또 언니들의 안전을 위해 '종사자 복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같은 게 생긴다면 어떨까요? ^_^



저녁 7시쯤

면접을 보고 문 열 때까지 쉬라면서 대기실로 데려다줬다. 벽에 걸려있는 홀복, 굴러다니는 굵 높은 구두, 가게에서 쓰는 물건들이 쌓여있었고, 지저분하긴 해도 꽤 넓은 곳이었다. 어색하고 뻔뻔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앉아 있긴 했는데, 도무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초조한 마음이었다. 조금 있다가 여자 한 명이 들어왔다. 예쁘지는 않아도 제법 귀엽고 매력적인 얼굴이다. 일 시작한지 일주일 안 되었으며, 여자는 자기 이름을 말하고(룸에서 쓰는 가명이 분명한)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알바하는 거라는,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아~ 그러냐고 대꾸했지만 나는 정말 그 여자가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진짜였다고 믿지도 않는다. 가게 문을 여는 8시가 다가오자 다시 4~5명의 17~19살로 보이는 여자들이 대기실로 우르르 들어왔다. 다들 친구사이 같아 보였고 소위 '까졌다'고 부르는 10대 여자애들 같은 분위

기를 풍겼다.

화장을 하며 수다를 떨다가 이들은 이내 밖에 나가서 가게홍보 전단을 뿌린다고 ○부장과 함께 나갔다. 나는 오늘 처음이라서 제외인가 보다. 얼굴 까고 밖에서 저런 일까지 해야 한다니 걱정이다. 내가 거부할 수는 있는 건가.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기실에 모인 여자들은 다들 나보다 어리고 예뻐다. 자신감이 점점 없어졌다. 전단지 돌린 애들이 들어오고 대기실에 있는데, 누군가 대기실에 찾아왔다. 홀복을 파는 방문판매원이었다. 벽에 걸려있는 홀복은 주인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골라 입거나 새 것을 사라고 했다. 벽에 걸려있는 주인 없는 홀복은 너무 노출이 많고 더럽기도 해서 새 홀복 하나를 골랐다. (이놈의 신상욕심!) 현금이 없었는데 오늘 계산에서 뺄 수 있다는 친절한 말에 욕심을 부렸다. 화장을 고치고 홀복을 입고 앉아있으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 4면으로 계속



별별에 담아내는 인생 보따리

→ 3면에서 이어집니다.

가게는 순번과 지명이 결합된

형태였는데 출근한 순서대로 순번이 매겨지고 테이블에서 필요한 여성수에 한 두 명이 더 가서 지명을 받는 방식이었다.

내가 초짜라 그런지 첫 손님이 들어올 때는 날 제외했다. 다음 손님은 단체손님으로 8명 정도가 들어왔다. 지명이랄 것도 없이 나를 포함한 모든 아가씨가 들어갔는데 번듯한 옷차림들을 한 직장인 같아 보였다. 내 코가 예쁘다는 말을 하길래 그래도 '못난 얼굴은 아닌가보다'라는 마음

에 안심이 되었다. 담배를 가져오라고 해서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서 담배를 사서 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웨이터가 나를 가로막았다. '담배 저 주세요. 안 들어와도 된대요.' 아! 진짜 초라하고 비참한 기분이었다. 내가 별로라는데 뭘 어찌겠냐 싶지만, 오늘 산 홀복값이며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뭔가 싫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밤12시를 넘기자 초조함에 바닥까지 갔는데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또 단체손님이 왔고 다행히도 두 시간을 끌었다. 오늘 공은 안쳤다는 안도감에 음치라고 소문난 내가 노래까지 하나 불렀다. 직장에서 왔음직

한 단체 손님 중 부장이라는 사람은 난리가 났다. 10대로 보였던 아가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가슴이 수박'이라면서 실실거리고 자꾸 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한다. 시선을 돌리고 10년 동안 안 피웠던 담배도 꺼내 물었다. 내 옆에 앉았던 남자는 참 점잖은 사람이었다. 내 몸을 전혀 만지지도 않았고 이름이 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물어봤다. 내가 했던 질문의 답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 이름은 그냥 둘러댔다.

신고식이라는 것도 없고 질편하게 주물러보려는 진상도 없던, 그런 하루가 끝나고 카운터 언니한테 내가 받은 돈은 홀복비 4만원을 제하고 4

만원 남짓이었던 것 같다.

신촌에 있는 친구집에서 자기로 했기에 신촌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친구집에 도저히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처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몸을 씻고 수면방에 누웠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그날 택시비와 찜질방비를 제외하고 26,000정도를 손에 쥐고서 하루를 곱씹어보자니 나는 정말이지 다른 세계에서 이동한 것 같았다.

벌써 10년이 다되어가는,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한 하루는 그렇게 새벽 다섯 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별별에 담아내는 인생보따리’ 코너는
여러분의 인생보따리로 채워집니다.
 유흥업소 취업기, 일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울리고 웃기는 인생 이야기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닌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별별광고.

안전, 사채, 노동 ...

별별신문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겪은 위험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혹은 사채빚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그리고 업소 사장과 불공정하게 맺은 근로계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 드립니다.

연락처: 010-2715-5309

이메일 : eloom2003@naver.com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12 5층 '별별신문' 담당자

상담은 [이룸]에서!

02.953.6279

www.e-loom.org 온라인상담 비밀게시판

[이룸]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로서,

선불금 문제, 사기기소, 고소, 파산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고소장 작성, 조사동행, 변호사선임 등)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생긴 질병(산부인과, 내과, 외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 지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직종을 바꾸거나 안정적인 취업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련기관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착한 남자친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여자, “제가 이 남자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하나요?”

저는 남자친구와 2년째 동거하고 있어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한 눈 안 팔고 저만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돈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갈 때면 남자친구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제가 알아서 데이트 비용을 자연스럽게 지불하곤 했어요. 남자친구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했는데, 동거하면서부터는 아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지내고 있어요. ‘일이 안 풀리나 보다, 오죽하면 저렇까, 기다려주면 되겠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돈을 번다는 것이 행여나 남자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의 담배도 사주고, 그 날 쓸 용돈도 눈치 보면서 놓고 나와요. 제가 밥을 차려놓고 나오지 않으면 하루종일 굶은 채로 컴퓨터 게임을 해요. 남자친구가 너무 착하고 잘 해줘서 저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리 저리 궁리하고 의논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해요. 갑자기 이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 평생 제가 지금처럼 용돈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착이-

1) 우선 남자친구가 굶어죽든 말든 그 남자의 의식주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친구의 의식주는 그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2) 지금부터라도 남자친구와 동거에 대한 책임을 나누십시오. 집세, 생활비, 청소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역할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에 혼자 보증금을 해결하게 되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애착이님이 혼자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3) ‘착한’ 남자친구가 나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그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남자친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착하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애착이님! 경제적으로 독립한 착한 남자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마담입니다.

경제력 없는 남자와 살고 계시는군요. 간신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온 남자친구가 애착이님을 만나면서는 자신의 삶을 애착이님에게 맡겨 버렸네요. 안타깝게도 현재 남자친구는 경제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끊은 듯 합니다. 동거를 결정했을 때

집세는 어떻게 나눌지, 살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지, 자잘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같이 산다기보다, 애착이님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정신적/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동안 애착이님에게는 이 남자친구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착해서 나만 좋

아해 줄거라는 기대가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애착이님은 남자친구를 과도하게 돌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애착이님의 돌봄으로 인해 2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애착이님, 이 관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지금처럼 이 남자친구를 평생 돌보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고마담의 심리상담!

010-8230-6279로 연락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이 달의 PHOTO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길이 1.2km, 너비 150m의 통바위인 구럼비 바위는 역사유물과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뚝게가 있고, 앞바다에서는 돌고래가 자맥질을 합니다. 국가안보라는 허상으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갈 주민들과 민주적인 합의절차도 없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구럼비는 평화이고, 민주주의이고, 공동체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는 해군기지를 반대합니다.

요망한 망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물건과 사건을 둘러싼 요상하고 망
측한 것들에 대한 거침없는 망상과
탄죽걸기!

“영화<화차>보다가 화병 생길라~”

[별별신문] 깡통



살 비비고 사랑하던 여자가 이름도 가짜, 살아온 세월도 가짜, 몸뚱이 빼고는 모든 삶이 가짜라면? ‘내가 알던 니가 니가 아니라니! 너 누구?’

두 명의 중요한 극중배역이 성매매 경험 여성으로 언급되는데 영화 보다가 파산면책을 준비하고 있거나 받은 사람들은 염통이 쫄깃해지고 식은땀이 짹짹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본인에게도 아닌, 남자친구라는 한마디에 은행에서 면책결정문을 달랑달랑 흔들어 보인다가거나 업소경험 또박또박 적어놓은 진술서를 법률사무소에서 짹라락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저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그저 공포스러울 뿐!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파산면책 관련한 모든 서류는 법률사무소와 법원에 3년 동안만 의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서류가 폐기가 되고 법률사무소도 본인 외에는 영화에서처럼 넘죽넘죽 보여주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 영화에 나온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공발 머징! 두번 머징!

그러니 언니드~을 영화 보다가 털썩 떨어진 심장 잘 추스리시고 콧방귀나 날려주세요~ 흥흥

살피고 살리는 살살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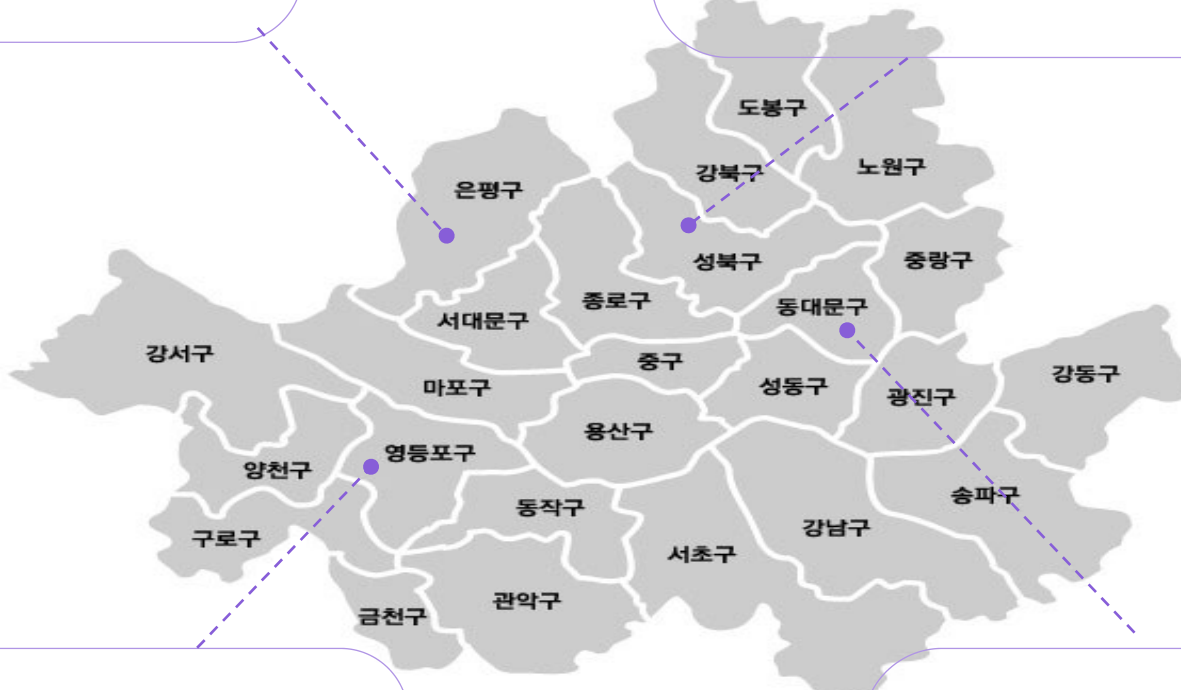
두루 살피고 살리는 “살살정보”! 이번 호에서는 무료 의료지원이 되는 곳을 알려드려요~~

도티병원 351-2300

- 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처음 이용시 : 접수처로 문의전화 (02-351-2301 ~ 2)
-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1동
- 홈페이지 : www.marydoty.co.kr
- 교통 : 지하철 3호선 녹번역 4번출구

성가복지병원 940-1500~2

- 대상 : 극빈자/무의탁자, 건강보험체납자,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 처음 이용시 : 사회사업과 문의전화 (02-940-1561 ~3)
- 주소 :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 홈페이지 : www.sgbokji.ip.or.kr
- 교통 :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출구



요셉의원 2636-2476

-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 건강보험체납자
- 처음 이용시 : 사회사업과 상담 (월~금 오후 1시~8시)(02-2636-2476)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홈페이지 : www.josephclinic.org
-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출구

천사병원 2213-8004

-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수입도 없고, 정부 지원이 없는 분
- 처음 이용시 : 신분증 지참 후 상담 (월~금 오후 1시~5시) (02-2213-8004)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홈페이지 : www.dail.org/1004
- 교통 :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6번출구